

尹, 9일 2주년 회견... 채상병 특검·부인 의혹 입장 밝힐까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 열어 의료계에 정부와 대화 요구 국정 동력 확보 계기 마련 촉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주요 메시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연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직접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시선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회견을 통해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만큼 변화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과 접점을 넓히는 것을 포함해 현장 방문 등 민생 소통 행보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 이후 '소통·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견해를 밝힐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법사실 문제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특검법의 문

제점을 짚은 뒤,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 변화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민심 수렴 기능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부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7일께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철저히 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같은 달 16일 국무회의를 통한 총선 후 입장 표명 등 최근 공개 석상에서 발언에 대해 유연함이나 내용 면에서 아쉽다는 정권권 안팎의 평가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회견을 계기로 확실한 돌파구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연합뉴스



어린이날 초청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쟁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금주 중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가 수사의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의 경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의 맹점 탓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 다른 쟁점의 법적 판단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론으로 의혹에 대한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도 관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중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조사일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

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곳이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순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리얼미터,尹 국정평가 긍정 30.3%·부정 65.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1.4%p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p ↑),

광주·전라(1.4%p ↑)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p ↓), 서울(3.0%p ↓), 대구·경북(1.5%p ↓)에서 하락했다.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김진표 "행정부 비판 하려면 국회의장 중립 지켜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데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구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면서 자신을 압박했

던 데 대해서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2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표결에 부친 데 대해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오는 20~28일 사이에 한 번 더 (재의 투표를 위한)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여벌 수 없이 표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